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사진 오른쪽)과 문화국장 심원 스님이 12~13세기에 제작된 자야바르만 7세의 두상을 보고 응당함과 정교함에 감탄하고 있다.

앙코르 와트 기획전

서울 역사박물관
9월 12일 까지

전시회연보기

역사박물관 입구에 핀 우담바라!
김우림 관장은 "앙코르 와트 유물전을 시작한 이후 역사박물관 입구와 왼쪽 건물 끝부분에 우담바라가 피었다"며 "아마도 캄보디아인들의 불심이 건너와 우담바라로 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박물관 측은 우담바라가 핀 장소에 유리덮개를 씌워 놓았다.

제5전시실 기도 공간으로 사용가능
제5전시실 작품의 대부분은 후앙코르 시대의 목조 불상들로 가득차 있다. 이 불상군의 맞은 편에는 예쁘게 수를 놓은 삼짱을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 드리는 전형적인 크메르 인의 모습을 조각한 '예배자'(아래 사진)란 제목의 목조각이 있다. 이는 캄보디아

아 박물관에서 불심이 강한 캄보디아인들과 한국 불자들이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전시관 내에 꾸며 보겠다는 의도로 기획해 놓았다. 단체나 개인이 와서 기도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비슈누 상'의 아픈 발은 한국서 응급처치
제2전시실의 대표적인 불거리인 비슈누 상을 유심히 들여다 보자. 왼쪽 발목 부분이 잘라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운반 과정에서 손상된 것인데 재빨리 역사박물관 보존처리 팀의 우수한 기술로 응급처치를 해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 유물의 응급처치는 때어진 것을 다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기술진이 복원할 수 있도록 때어진 자리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것이다.

특급 수송 작전
유물의 대부분이 모래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습도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위해 한국산 오토나무로 특수 제작된 박스를 1백여개 이상 만들어 캄보디아로 미리 보내 유물을 수송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유물은 설명을 들어야 그 의미를 비로소 알 수 있다. 박물관 내에는 앙코르 와트 유물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13명의 가이드가 있다. 하지만 안내를 받으려면 시간 제한이 있다. 오전은 11시부터, 오후에는 1시부터 각각 1시간씩이다. 15인 이상 단체는 미리 예약하면 된다.

기술고문 '숙안'에 듣는 귀한 정보
전시장 내에서 운이 좋으면 캄보디아 박물관에서 특사로 파견된 기술고문인 숙안(58·사진)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유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 때문에 상주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수를 매일 캄보디아 박물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영어를 할 줄 안다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그만큼 이 건전한 귀한 유물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 드리는 크메르인을 목조각한 '예배자'.

불가사의의한 천년의 숨결

장마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아 후덥지근하고 무더운 요즘, 시원한(?)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문화 여행을 떠나보자.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이고 그곳에 가려면 비용도 만만찮은데 무슨 소리가 의아해 할지 모른다. 하지만 걱정은 금물. 값비싼 유물덕에 냉방 장치가 잘된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 와트 보물의 진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앙코르 와트 보물전 전시위원회'(위원장 정양모)와 서울 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크메르 문화, 그 천년의 신비를 찾아서'란 부제로 6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열린다. 전시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지만 오후까지 10일만에 입장객 수가 벌써 1만명을 돌파했다. 앙코르 와트 보물전 전시 사무국의 이철주 프로듀서는 "쉽게 감상하기 힘든 진품을 옮겨와 장엄하고도 매력적인 천년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 유물 100점(감정가 280억원)과 배병우 작가의 앙코르 와트 관련 사진 20점을 감상할 수 있다. 대표 전시품으로는 12~13세기에 제작된 자야바르만 7세의 두상을 비롯해, 팔이 넷 달린 비슈누 입상, 우마와 시바신 조각상 등이 있는데 총 6개의 전시실에 안치돼 있다. 특히 제2 전시실에 있는 앙코르 와트의 주신인 비슈누 입상과 시바상은 놓치지 말자. 9세기경 작품인 이 입상은 팔 네 개에 각각 지구·월반·소라·공봉을 들고 있는 신상(神像)이며, 10세기경에 제작된 우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00점 진품 전시 2실 비슈누 입상, 4실 자야바르만 두상 눈여겨 볼만 유리관 제거 실감, 방학 맞이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마와 시바상은 왕관을 쓴 시바신이 그의 배우자인 우마의 허리를 감싸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제3전시실의 사다시바 상은 12세기 무렵에 등장한 청동제 조각으로 시바신을 묘사하고 있다. 이 조각상에서 시바신은 얼굴이 아래 각 네 면에 하나씩 배열돼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얼굴 하나가 얹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 다섯 얼굴은 각각 땅·물·불·공기·기의 다섯 원소를 의미한다고 한다. 제4 전시실에 자야바르만 7세 두상도 눈여겨 볼만한 작품. 프레이 칸의 고풍 토티란 곳에서 출토된 사암(砂岩)제 조각인 이 두상은 정복 군주이자 불교에 심취한 앙코르시대 제왕이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명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걸작이다. 앙코르 와트는 앙코르 왕조 전성기를 이룩한 제왕 수리아바르만 2세가 기술자 3만명을 동원해 30년만에 쌓은 거대한 힌두교 사원으로 855년 프랑크 탐험가이자 생물학자인 앙리 무어에 의해 재발견되어 널리 알려졌다. 이번 전시를 둘러본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은

"몇년전에 실제로 앙코르 와트에 가본 적이 있어 크메르 문화의 웅장함에 혀를 내둘렀었다"며 "진품들을 다시 보니 앙코르 와트에 다시 서 있는 듯한 감회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우림 관장도 "워낙 고가의 진품들이라 처음에는 보호 유리관을 씌워 전시하려 했지만 감상하는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 대다수 오픈 했다"며 "이번 전시는 97년 캄보디아와 수교한 이래 처음으로 양국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람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8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7시다.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하루 세차례 운영한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 어린이는 6천원이다. 월요일은 휴관. 서울 전시가 끝나면 내년 3월까지 지방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한국 전시 이후에는 일본 8개 도시와 독일 6개 도시 순회전을 하게 된다. (02724-0114)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티셔츠 기본 색상

카키, 베이지, 소라, 오렌지, 연옥, 검정, 홍색, 코발트, 근색, 빨간지, 자주, 백색, 분홍, 노랑

상담 및 주문전화
02) 732-1520



2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4,000원, 유색 4,500원



30수 아동 라운드티
백색 3,200원, 유색 3,800원



20수 이종 라운드티
5,200원(아동) 5,500원(일반)



20수 아동 폴로티
6,500원



2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30수 라운드 티셔츠
백색 3,500원, 유색 4,000원



배색라운드 티셔츠
6,000원



20수 2선 나그랑 라운드티
6,500원



20수 나그랑 라운드티
6,000원



면 반바지
백색 5,000원, 유색 5,500원



면 반바지(아동용)
백색 4,500원, 유색 5,000원

추천상품



법구경가림타
1,500원



연꽃저금동
2,500원



동자저금동
4,000원



종경 차갈이
4,000원



캐릭터 열쇠고리
개당 2,000원

*** 마하몰 T-셔츠 캐릭터 ***

- 순면 20수 코마사 100%
 - 두툼하고 고급스러운 원단
- 순면 30수 코마사 100%
 - 대중적인 티셔츠로 부드러운 질감
- 사이즈 : 아동용 14호~19호 성인용 90~110
- 단체용 · 사찰명 원하는 이미지 인쇄가능
- 나염비(1도당) 15,000원 추가 (인쇄색상 추가시 인쇄비용 별도)
- 최소주문수량 50장
- 기타 색상 및 로고제작은 전화상담

마하몰 단체 행사용품 특별기획전